

고흥군 김·미역 황백화 현상 원인규명 착수

태풍 ‘차바’ 발생 이후 생장부진...어업피해 우려

해조류연구센터 등 6개 기관 합동 정밀조사 나서

고흥군이 청정 고흥해역에서 양식되는 일부 김·미역에서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원인규명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겨울 출하기를 맞아 청정해역에서 생산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고흥산 김·미역 중 일부에서 황백화(김 색깔이 황색으로 변해 상품가치 하락) 현상과 생장 부진 등

이 나타나면서 원인분석에 들어갔다.

고흥군은 지난 7일부터 국립해조류연구센터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원인 분석을 위한 어장환경조사 및 시료채취 등 합동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제16호 태풍 ‘차바’ 발생 이후 해조류 생장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양식 어가의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고 원인을 분

석해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정밀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게 고흥군의 설명이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이상조류 등에 따른 피해를 복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어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 11월에도 2차례 사전 조사를 통해 김 업체 선택 이상 및 생장부진 현상이 황백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지난 2014~2015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용존무기영양염’에서 기인한다는 원인결과를 찾아내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양식어가의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정밀원인을 찾아 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고흥산 청정 김과 미역이 어가 소득 증대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 지원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산 김은 지난 2015년 말 기준 7만 여책을 시설해 7만7000톤을 생산, 743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미역은 5만5000대를 시설해 13만8000톤(소득 143억원)을 생산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j@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고흥군 3년연속 최우수 기관

전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도시인 고흥군이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201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군은 2013년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2014년에는 평가 면제를 받았고 다음 해인 2015년에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흥군은 올해 최우수군 선정으로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3회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기반 조성,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성과, 기관장 참여도, 행정기여도 등 5개 영역에 15개 항목, 51개 지표에 대해 서면과 현장·행정평가를 진행했다.

고흥군은 청소년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성장사례 발굴 등 청소년 관리에 중점을 둔 운영과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도움을 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손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특별 전문체험활동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청소년 지도사들의 열성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 경제적 사유로 방과 후나 홀로 방치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숙제지도, 보충심화학습, 특기적성교육, 급식제공, 현장학습지도 등 종합적인 생활지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고흥=주각종기자 gjuj@



마을 사랑방이 생겼어요! ...곡성군 오곡면 봉조 1구 마을회관 준공식

곡성 오곡면(면장 김성중) 봉조1구 마을에 ‘사랑방’이 생겼다. 곡성군은 “유근기 군수·곡성군의회 이만수 의장 등 과 마을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

다. <사진> 곡성군은 1억2000만원을 들여 59.40㎡ 면적의 마을회관을 마련했다. 봉조1구 마을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고흥군 “적금~영남 연륙교 명칭 ‘팔영대교’ 환영”

국가지명위원회 참석위원 19명중 18명 동의 확정

고흥군은 “지난 9일 국가지명위원회가 적금~영남간 연륙교 명칭을 ‘팔영대교’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팔영대교’란 명칭은 전남도지명위원회가 지난 4월 ‘팔영대교’로 의결했으나, 지난 6월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에서 여수시와 고흥군간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전남도는 이후 양 시군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전국의 지명전문가 2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로 고흥군과 여수시와의 의결 방법을 합의했다.

지난달 24일 대전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참석위원 다수가 ‘팔영대교’안을 지지했으며, 다음날인 25일 전남도지명위원회에서 참석위원 9명 전원 이 ‘팔영대교’로 연륙교 명칭을 재결정했다.

이번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 29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지명위원회가 결정한 ‘팔영대교’안에 대해 참석위원 1명을 제외하고 18명의 위원이 동의해 최종 확정됐다는 게 고흥군의 설명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여수~고흥간 11개 교량 중 고흥의 상징인 팔영대교 명칭 재결정으로 양 지역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사이좋은 이웃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종기자 gjuj@



구례군 노인권익증진·보호 업무협약

구례군은 “최근 구례군종합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실에서 노인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해 전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배재권)과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회장 이순재)와 함께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식은 노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노인 학대·방임·실종 등 신규 노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향후 유가적인 협업을

통해 노인 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 및 신고에 대한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자문과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 제공, 다양한 정보를 공유 등 총 6항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배재권 관장은 “노인인구 급증과 맞물려 학대 등 다양한 노인 문제에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노인회, 노인전문기관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 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곡성심청축제 내년 10월 5~8일 개최

추진위원회 일정 확정

내년도 ‘제17회 곡성심청축제’ 일정이 확정됐다.

곡성군은 “내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에 걸쳐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심청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심정섭) 회의를 개최하고 추석 명절에 따른 긴 연휴기간을 고려하며 축제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제17회 곡성심청축제’는 추석 명절

다음날부터 진행돼 연휴 기간 고흥을 방문하는 향우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축제일정 협의 외에 지난 9월 30일부터 4일간 개최했던 ‘곡성심청축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심정섭 위원장은 “곡성심청축제가 16회를 지나면서 지역민이 화합하는 축제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면서 “심청 축제에 담겨있는 ‘효’를 잊지 않고 내년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고흥보건소 ‘잠이술술 한방불면증 클리닉’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사례 선정

고흥군은 “전국 78개 보건소가 응모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심사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한 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해 제주도에서 열린 ‘2016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잠이술술 한방불면증 클리닉’ 사업을 발표해 전국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발표회는 전국 78개 보건소가 응모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심사를 거쳐

최우수사례 1개와 우수사례 7개, 전국 16개 보건소가 참여한 노인대상 시범사업 심사에서 우수사례 2개를 선정하고 전국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고흥군 보건소의 ‘잠이술술 한방불면증 클리닉’은 일차성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맞춤처방, 수면일지작성, 전문 심리상담 등을 실시해 만족도가 높았다. /고흥=주각종기자 gjuj@

상가 매매 6층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50평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 즉시입주 / 주차완비 / 난방완비 인테리어 최고급 완비(5천만 투자) ★ 차세 1억6천만 매가 1억1천만 ※(임대 가능 보2천 월 60만) (용 5천) 북구 중흥동 커피숍 임대(1층)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시설 완비 / 즉시 입주가능 ▶ 보 2천 월 70만 첨단 사무실 임대 (1층~7층)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월)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월)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층수 : 총 8층 구분 : 1층(상가 - 120평) (2층 ~ 8층 룸 58개) ★ 감정가 55억 매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상무지구 6층 오피스상가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 23평 (투룸 형) ● 상무지구 중심가 / 리모델리 완비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만(용 4천)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전원주택 최고 위치 ▶매가 8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용 1천6백만) ▶매가 8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전망 좋음, 주변 골짜기,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걸바엔)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용 2천4백만) ▶매가 7천 500만 ■ 서울 용산 청라 도시형 지하 (13평) 숙영여대 1번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용 5천)	법률 경매 (주) 대진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전남 영암군 시종면 (3층 상가주택) 토 209평 건 304평 1층 (식당) 2층~3층 (원룸 8개) 4차선 도로 접 (임대각정임) 임대각정 없음 / 건물 상태 양호 ▶감정가 8억8천 → 최저가 3억2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룸 30개 (달방수리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6억6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접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 장성군 북하면 (2층 식당) 토 280평 건 253평 식당 최고의 자리 / 백양사 관광지 위치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토 33평 건 146평 12층 중 2층 6차선 도로 접 / 넓은 평수 / 광고 최고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4억
010-7384-7800		010-6670-9800	